

강기정 시장 연초부터 '광주 세일즈'

12일까지 美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참가...광주 홍보관 운영 e-스포츠 게임 세계대회 유치 협약...AI·미래차·의료도시 등 집중 홍보

강기정 광주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미래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광주 세일즈'에 나선다. 강 시장과 광주대표단은 4일부터 12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실리콘밸리 등을 오가며 숨가쁜 해외 일정을 소화한다. 해외시장에서 광주의 축적된 기술력을 선보이고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미래 산업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행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는 1967년 시작된 세계최대 규모의 종합 가전·IT 전시회다.

올해 CES 대표 기술 트렌드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로봇, 헬스케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AR&VR), 5G 등 28개 품목이며, 160여 개국 24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CES에 첫 출격하는 광주시는 지역 기업 8개사를 이끌고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 운영한다. 인공지능(AI)과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구현한 가전·IT 제품을 선보이고 광주만의 축적된 선진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시는 이번 기회에 광주 공동브랜드인 GIEL(지엘)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도 본격화한다. 또 글로벌 이스포츠 게임 전문 채널인 ESTV와 세계 대회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CES 혁신

상 수상 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 체결, 세계적 기업들의 신기술·신제품을 관람하는 등 성장 동력을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AI)·미래차·의료도시 분야의 혁신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시회 기간 중 운영되는 각종 전문 포럼 참여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 해법' 찾기도 나선다. 대표단을 이끌 강기정 광주시장은 "CES 2023은 광주시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로 인공지능(AI)·미래차·의료도시 등 광주의 축적된 기술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첨단산업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새해 첫 5·18 묘지 참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정신의 계승과 민생을 위한 새해 각오를 다짐했다. 이날 참배에는 광주시당 이병훈(동남을) 위원장과 운영덕(동남갑), 송갑석(서구갑), 조오섭(북구갑), 이형석(북구을),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 시장 "변화로 시민행복 이끌겠다"

광주시 음악·토크가 흐르는 시무식...정책 방향 등 문답

광주시가 시장과 직원 간 즉답 대화를 통한 소통 행사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정례조회를 겸한 시무식을 열었다. 강기정 시장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조직 활력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변화로 시민 행복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실·국장 등 간부와 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직원 대표 4명이 질문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즉답하는 소통이 이뤄졌다. "드라마 '재벌 집 막내아들'처럼 모든 기억을 갖고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민선 8기를 시작한다면 어떻겠느냐"는 직원 질문에 강 시장은 "4000여명 공직자가 지금처럼 해준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 시장은 "공직 생활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공무원이 하겠느냐"고 직원에게 역질문하기도 했다. 특히 안전 문제, 공모사업 실패경험, 육아·보육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가는 등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이뤄졌다. 강 시장은 질의 응답이 끝난 뒤 가수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휴대전화로 틀어 함께 듣기를 권했다. 강 시장은 "노랫말처럼 '지금까지 잘 왔고 앞으로 잘 나아가자'고 서로 격려하자"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웠고, "조직활력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변화로 시민 행복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산단 시찰로 새해 첫 업무

전국체전 열릴 목표종합경기장 점검...나주 에너지산단 속도전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계묘년 새해 첫 현장 시찰지로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인 목표종합경기장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어 지난해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산단 배치계획안 등 사업 계획을 살피고 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목표종합경기장은 지상 3층, 연면적 2만6468㎡, 관람석 1만6468석 규모로 건설된다.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와 육상경기가 치러진다. 전남도가 국비 200억원과 도비 330억원 등 530억원을 지원하고 목표시가 618억원을 들여 총 114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골조공사가 완료돼 공정을 70%를 보이고 있다. 오는 6월이면 주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경기장이 준공되면 시운전을 거쳐 7월께 전남도, 목표시 등 주요 체전 관련 기관이 주경기장에 입주해 본격적인 전국체전 운영체제가 가동된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목표시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이어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도내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전남도는 주경기장 외에도 목표반다비체육센터, 광양성황스포츠허브수영장(완공), 나주 스퀘어시전용경기장 및 룬블장에인경기장 등 신축 경기장 4개소와 기존 경기장 51개소를 22개 시·군과 협력해 경기장에 문제가 없도록 개보수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나주 혁신산업단지 인근에 2030년까지 3080억원을 들여 120만㎡ 규모로 에너지밸리산업, 신소재나노융합소재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김 지사는 "관계기관이 혼연일체로 조성 기간 단축에 노력을 기울여 기업이 필요한 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후 "에너지 국가산단과 혁신산단 등을 연계한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여수 만흥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년간 평촌마을 일원 0.412km²

전남도가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km²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 지역은 기존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2014년에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행 방범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를 초과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재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설 대비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11일까지 축산물 제조·유통점

광주시는 설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구입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으로 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3500여 곳 중 대형상점과 전통시장 내 업소,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 업소 등이다. 위생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로,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보관·운반 시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제 취급 여부 ▲축산

물이력제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설 선물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과 동시에 축산물을 수거해 변질 여부와 성분검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광역시 의사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유환**

대표전화. 062_529_210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18번길 25(신안동)



광주유일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